

내손으로 딴 차 맛도 일품

4월 20일 곡우, 차밭마다 제다체험행사 풍성



울 봄에는 보드라운 첫잎을 따서 '나만의 차'를 만들어 보는것은 어떨까? 현대불교 자료사진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가기 좋은 때다. 4월 20일 곡우를 앞두고 한창 새싹을 내미는 차밭을 거닐어 보거나 가족, 연인과 함께 첫잎을 따서 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직접 딴 차는 그 어떤 '명품 차'도 흉내낼 수 없는 맛과 향을 선사할 것이다. 차밭기행과 제다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한다.



첫잎 따기 체험을 하는 외국인들.



제다 체험.

는 야생 차밭은 녹차시매지와 차문화센터, 쌍계사, 칠불사 입구를 지나 화개골 30여 리에 걸쳐 퍼져 있다. 최근 경남도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된 국내 최대·최고(最古) 차나무인 하동 정글리 차나무도 둘러볼만 하다. 하동군 차문화센터 (055)880-2371

흔히 차밭 기행이라고 하면 보성과 하동만 떠올리지만 제주도에 차밭 기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제주에는 서귀포도 순다원, 남제주군 서광·한남다원 등 40여 만 평의 다원이 조성되어 있다. 15만평 규모의 서광다원에 위치한 설목차박물관 '오설목'에서는 다양한 차 음료를 마시며 쉴 수 있다. (064)794-5312

▶제다체험

직접 차를 만들어 보는 것만큼 차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차 농사를 짓는 농가나 제다업체 등에서 이른 아침 첫잎을 따서 선별하고 가마솥에 넣고 멍석에 비비는 차 만들기의 전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다.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첫잎을 따 오면 되고 비비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단, 차를 뒤을 때는 솔이 뜨거우므로 손을 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주시 중심사 삼애다원의 예술 건축 공간인 의재미술관에서는 당일 차밭 체험을 할 수 있다. 의재미술관은 남종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의 예술혼과 정신을 기리고자 설립된 것으로 무등산 등산로를 그대로 살린 자연 친화의 현대식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062)222-3040

전북 전주 시 교동의 전통한옥마을의 양사재는 '야생 차밭 기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목대와 강경마을 야생차밭 답사, 다례 체험, 다담(茶談) 등이 마련된다. (063)282-4959 광양시 다압면에서는 관내 제다업체들과 함께 1박 2일 일정의 '차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가 만든 차를 농가에서 마무리해 가정으로 배달해준다. (061)797-3324

이 밖에도 보성과 하동의 제다업체들에서도 사진 연락 시 제다체험을 해볼 수 있다. 보성군 문화관광과 (061)850-5224, 하동군 문화관광과 (055)880-2114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pia.com

창경궁 '전통 차예절 체험'

문화재청 창경궁관리소(소장 정중수)와 한국차문화협회(이사장 이귀례)는 '전통 차예절 체험-전통차의 그윽함과 함께 하는 궁궐나들이'를 10월 21일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 창경궁 영춘헌·집복헌에서 실시한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행사는 차문화의 이해 및 생활예절, 다도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tea.or.kr)나 전화 (02-701-0475)로 접수하면 된다.

경주박물관 차나무 심기



국립경주박물관은 4월 3일 야외정원에 차나무 700주를 심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김성구)은 식목일을 앞둔 4월 3일 박물관 야외정원에서 차나무 묘목을 심는 '푸른 차(茶)나무와 함께하는 국립경주박물관' 행사를 개최했다.

경주박물관은 지난해 식목 행사에 차나무 묘목 100주를 심는데 이어 이날 700주의 차나무를 심었다. 또한 이날 경주박물관이 운영하는 '차 문화대학' 입학식도 함께 열리기도 했다.

경주박물관 관리과 관계자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상징하는 차나무의 향취를 느끼며 문화재를 관람하도록 묘목 심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홍포·화차·인삼오롱·외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짱우회(姜育發)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3. 칠자병차 속 숫자보이차

'숫자보이차'의 어려움은 상품포장지 그 어느 곳에도 숫자에 관한 정보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데 있다. 사실 숫자보이차의 탄생은 해외 시장인 홍콩을 겨냥한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이차의 포장은 357g×7편을 한 통에 담아, 12통을 대광주리에 담은 것이 전통포장법이다. 이때 상품의 출처를 알리는 전지를 만들어 대광주리에 한 장 넣는 것이 당시 유행 형태였다. 보이차 시장에서 이 전지를 가리켜 지비(支飛)라고 한다.

지비에는 차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 상품명칭, 출고공장, 중량 특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소위 칠자병차의 레시피 즉 7572, 7542 등

하단에는 '중국토산축산진출구공사운남성차업분공사(中國土產畜產進出口公司雲南省茶業分公司, 영어 병기)' 등의 글자가 적혀 있다.

인쇄에서 판별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상단 '운남칠자병차'에서의 '운(雲)'자와 '차(茶)'자의 상이점, 하단 '중국토산' 부분에서 인쇄된 '중(中)'자의 크기 그리고 '팔중차' 로고의 '차(茶)'자의 색상, 내비(內飛)에 인쇄된 '서성관남태족자치주맹해차출품(西雙版納傣族自治州勐海茶廠出品)'라는 문구에서 '주(州)'자와 '출(出)'자의 차이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내표(內票)의 대소(大小) 크기와 '인진배방(認眞配方)'라는 문구를 특별히 추가하여 편집한 내표 등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지비(支飛)에 상품 명칭 등 인쇄해 유통 차 정보 부재는 '짜퉁 보이차' 창궐 일조

과 같은 문구가 바로 이 '매두(麥頭)'란에 적혀 있다.

'매두'라는 단어는 중국의 표준어가 아닌 홍콩, 광둥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Mark'의 홍콩식 표현이다. 지비에서 매두(Mark) 문자의 삽입은 칠자병차의 출생이 홍콩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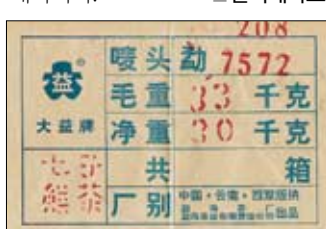
이처럼 칠자병차에 관한 정보는 결국 광주리를 통째로 구매하지 않는 한 개별포장으로 된 보이차의 포장지만으로는 그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차에 관한 정보는 도매상들에게만 알려줄 뿐 소비자들은 상인들의 입에만 의지하는 이상한 유통구조로 번잡되어 결국 '짜퉁 보이차'가 창궐하는 데 일조하게 된 것이다.

보이차의 정보 부재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일부 보이차 애호가들, 특히 타이완의 마니아들이 칠자병차의 포장지들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수십 종에 달하는 포장지의 재질, 인쇄명도, 글자의 차이점 등을 정리해 이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칠자병차의 진위에 관한 판별법을 내놓았다.

칠자병차의 포장지에는 둥근 원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운남칠자병차(雲南七子餅茶, 영어병기)' 중앙에는 '팔중차(八中茶)' 로고 그리고

차성(茶型)이라 불리는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이러한 말을 남겼다. '무릇 차의 좋고 나쁨은 오직 구전비결에 있다(茶之臧否存於口訣)'. 그는 750년대에 "표피적(皮積)이 아닌 차의 장·단점을 함께 논하고 감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차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에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을 수 없으며 오직 구전비결에 따라 부단히 지식을 연마해야만 진정한 차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천한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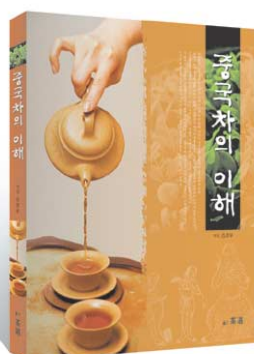
보이차의 지식과 정보를 공부하는데 있어 절경 즉 지름길은 없다.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보이차의 과학, 역사를 연마 그리고 연구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말은 보이차의 진위 판별법에 있어 포장지에서 나타난 여러 사인들은 결국 결과지에 불과한 참고사항이라는 뜻이다. 육우의 일침은 오늘날의 보이차에도 유효하며 보이차 애호가들에게 많은 것을 사색케 하는 대목이다.



보이차의 지비 내용.

중국어차의 이해!

차문화가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국내는 상당부분 중국차가 보급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중국을 여행 하면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아 집에 한두 종류의 중국차는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선물을 받았으나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어떻게 우리 미시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들은 필자가 현장을 직접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내용을 정리 하여 중국차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사와 제작과정, 차를 판매하는 시장 등을 소개하여 쉽게 중국차를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중국어차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알고 싶으세요?
자사호(紫沙壺)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어차 우리기에 대해 알고 싶다고요?

중국어차의 이해를 보시면 이 모두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어차의 현장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생하게 기록한 중국차 지침서



• 컬러(183×235), 288페이지 • 저자 : 김경우 • 가격 : 24,000원

구입문의 : 월간 다도 Tel : 02)722-7777

중국어차의 이해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蠟燭鑄造工法으로 10,000년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범종장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kg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보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한하면서도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eungjongsas.co.kr / E-MAIL : sungjongsas@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대한민국 명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